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국일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람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시편 13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총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2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2002년도 제1차 청지기 훈련

“주의 만찬”

2월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모든 교인을 대상으로

2002년도 제1차 청지기훈련이 2월20일부터 22일까지 본당에서 총현의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청지기 훈련에서는 ‘주의 만찬’이라는 주제로 성찬에 대하여 다루게 되는데, 예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찬에 대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총현의 모든 성도들은 제1차 청지기훈련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며, 이 기간에 다른 일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극히 시간조정을 해 주시기 바란다.

수요일: 주일에서 제정하신 것 (고전 11:23)
목요일: 떡과 포도주(표지) (고전 11:24~25)
금요일: 무엇을 기념하는가 (고전 11:26)

지난 수요일에 매시지

그리스도인의 특권 (롬 5:1)

‘그러므로 - 이 접사는 본분 바로 양심의 마지막 구절과 본분을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기록된 단어인데,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으므로’ (롬 4:21).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 믿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응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義)를 선물로 받는 일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로 부터 값없이 의(義)를 응답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義)는 죄인이었던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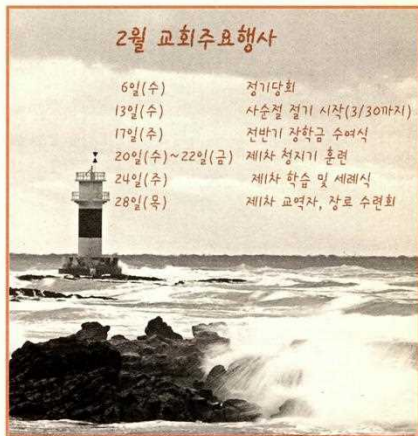
‘해국된 그리스도인의 특권’ -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하나님의 의(義)와 영원한 화평’이라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세속적인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것이 믿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특권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속적 축복은 불교와 이슬람, 그리고 유교 등 모든 종교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義)와’ ‘하나님과 화평’을 소외시키기는 것,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 신앙의 왜곡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관은 믿는 자가 예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필요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신들의 도구로 소유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한사람, 한사람 특별한 독림인격체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축복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무엇인가? 다음의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의(義)의 친밀한 관계’ -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 인간의 모습이기에 부르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비바하심이다. 죄인인 인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심판자가 아니라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친밀하신 아버지 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친밀한 관계의 형성은 혈통이나 육질이나 사람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권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요한 1:13).

‘확실히 보증된 관계’ -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보충할 수 없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평화를 누리지만, 금세 불안에 빠지는 것이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이기에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증된 관계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 또는 상상이나 추측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확실한 보증 관계는 오직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가하신 언약에 의존되는 것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롬 8:16). ‘내가 확신(하노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관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거나 일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안전한 관계’ -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관계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녀들에게는 잘못을 범하는 일이 많았으며, 부모는 여전히 다시 고개를 허락할 것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견고하며 안전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특권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순간 순간의 회개가 필요할 뿐이며, 회개를 통해서 언제나 친밀하고 안전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2월 교회주요행사

6일(수) 정기대회
13일(수) 사순절 절기 시작(3/30까지)
17일(수)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
20일(수)~22일(금) 제1차 청지기 훈련
24일(주) 제1차 한식 및 세례식
28일(목) 제1차 교역자, 장로 수련회

신앙 탐험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지평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젊은 날에 있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자신에 대한 바른 정체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장 잘 완수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주일에서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열정은 또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평생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 자신의 정체감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십자가 밑에서 죽어야 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겨 깨닫게 됩니다. 우리 총현의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차츰차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은혜의 복음에서만이 우리는 바른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은 성도들이 결연한 마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가야하기에 올케는 더욱 성도들의 희생과 봉사가 요구됩니다. 그 희생과 봉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2002년 새해에 봉사위원회의 주선 아래 가지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각각 받은 은사로, 주신 사명대로 행하여, 교회 구석구석에서 사랑과 은혜가 넘쳐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우리의 분명한 사명감으로 아름다운 ‘총현’의 천국이 창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 대 원 (장로, 봉사위원장)

*다음주 필자는 제3교류위원장 오영환 장로입니다.

Who are the blessed ? (Luke 11:27-28)

"And it came about while He said these things, one of the women in the crowd raised her voice, and said to Him, 'Blessed is the womb that bore You, and the breasts at which You nursed.'"

But He said, "On the contrary, blessed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observe it."

After Jesus cast out a mute demon from a man, the mute man spoke. The crowds were totally amazed at this miracle. Some religious people in the crowds analyzed the situation and determined that this miracle was caused by Beelzebul, a word used by the Jews as a name for Satan. The crowds became perplexed and wanted some sort of sign that this miracle came from heaven. So, Jesus dealt with their confusion by using simple truth. He illustrated to them that a house divided falls. Then, He reasoned with them that "If Satan also is divided against himself, how will his kingdom stand? For you say that I cast out demons by Beelzebul" (v. 18). The real beauty of His explanation came when He told them, "But if I cast out demons by the finger of God,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v. 20). With sincerity and lovingkindness, Jesus shared the word of God among all the people, even the hypocrites. He wonderfully unveiled the glory of God in the healing of the man who couldn't speak.

Jesus went on to justify that even a strong man, fully armed, can be overtaken by someone stronger. In other words, the strong man is Satan; the stronger is Christ. He told the crowds, "When the unclean spirit goes out of a man, it passes through waterless places seeking rest, and not finding any, it says, 'I will return to my house from which I came' Then it goes and takes along seven other spirits more evil than himself, and they go in and live there; and the last state of that man becomes worse than the first" (vv. 24&26). The meaning was crystal clear. No one, without the strength of God, can endure Satan's attacks. The kingdom of God must be with you! If it's not, then whoever is not with Christ is against Him; and he who does not gather with Christ, scatters.

Upon hearing Jesus' words, many within the crowds who had followed Him were still listening to the high religious officials. The Bible doesn't tell us how deeply His preaching reached. We are told that one woman within the crowd gave a strong witness by raising her voice and saying, "Blessed is the womb that bore You and the breasts at which You nursed" (v. 27). We don't know if this woman understood Christ's message, but we can see her tremendous and charming emotion toward Jesus. Her heart truly burned for Him. She respected Him and glorified Him like a prophet. Her testimony is very similar to Elizabeth's praise, "When Elizabeth heard Mary's greeting, the baby leaped in her womb; and Elizabet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she cried out with a loud voice and said, 'Blessed are y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your womb'" (Lk. 1:41&42)! The Bible also tells us that Mary prayed, "For behold, from this time on all generations will count me blessed" (Lk. 1:48). Indeed, this woman spoke the truth.

Jesus did not deny this woman's confession. Actually, He recognized it but explained to all present what was the real blessing, "On the contrary, blessed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observe it" (v. 28). The real blessing is the importance of the Word of God. John 1:1 tells u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Jesus wants to save us. We have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in order to become children of God. It's vital that everyone understand this major point. "For whoever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he is My brother and sister and mother" (Mt. 12:50). Isn't that the key? God wants to change us from sinners to His children. To do so, we have to practice His Word. We have to relate with the Word of God. We have to have an eternal relationship with the Word. We desperately need a transforming relationship, a relationship of salvation, a relationship with life. We must have a true relationship with the blood of Jesus.

When we look at the story in John 2 about the wedding in Cana, we see Jesus' mother, Mary, explain to the servants "Whatever He says to you, do it" (Jn. 2:5). His word is so important. Even His mother understood this truth. Luke 8:21 mentions Jesus' saying, "My mother and My brothers are the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do it." Got the message? Do you need more? Read Matthew 7:24,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acts on them, may be compared to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Jesus died, resurrected, and ascended for us. What happened after our Lord rose? Acts 1:14 says, "These all with one mind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along with the women,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and with His brothers." One mind. Now, they are doing what Jesus asked. Jesus asked them to pray and not leave Jerusalem. His mother and brothers are doing the Word of God. Before this time, Jesus' Mom treasured the Word of God and pondered the Word of God in her heart (see Lk. 2:19). She didn't do them. She didn't throw them away, she just thought about them. Not until we read the account in Acts 1:14 do we see his mother and brothers realizing, observing, and doing His Word.

Often times we say Jesus is good, and that He is the Son of God, but we don't do what He says. We have to do what He says, that way we become God's children. The Jewish people believed in God but they didn't do what He wanted. They didn't follow what He said. They waited for the Messiah, but when the Messiah cast out a demon in front of their eyes; they attributed His miracle to demonic activity. Who are the blessed? Those who keep and do the word of God. Truly, those who do the word of God are the children of God. Let's practice our faith and do the Word of God! What does God's Word want you to do? He wants you to trust in Him with all your heart and not rely on your own understanding. He wants you in all manners of life to acknowledge Him, so that He can direct your paths. In other words, He wants you to be born again; you have to die to yourself so that Christ can live in, with, and through you. My dear friends, read your Bible, pray to the Lord continually, and let His Holy Spirit guide you in every moment of every day. Blessed are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observe it. 🙏

축복 받은 자는 ? (눅 11:27~28)



김성관 목사

“이 말씀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뵈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귀신을 몰아내심

예수께서 한 사람에서부터 병어리 귀신을 쫓아내사라.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이 군중들은 완전히 놀랐습니다. 군중들 중 일부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 상황을 분석하면서 이 기적이 바알세불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바알세불은 유대인들이 사단을 부를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군중들은 혼란스러워 했고 이 기적이 하늘로부터 일했다는 것을 보여줄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장 간단한 진리로 군중들의 혼란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집안이 무너져서 예를 사용하고 이렇게 논리를 펴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합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세웠느냐”(18절). 예수의 설명의 진수는 다음 문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합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20절).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 심지어는 위선자들에게까지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말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을 고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유감없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의 권세

예수께서는 완전 무장한 강한 사람이라고 그보다 더 강한 누군가에 의해 압도될 수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을 의미하며 더 강한 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기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착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24~26절).” 그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사단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사단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흠져지게 됩니다.

한 여인의 고백

예수를 따르던 군중들 중 예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이들은 여전히 고위층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영리가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군중들 중 한 여인이 목소리를 높여 강한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뵈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27절). 우리는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해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예수께 강하게 끌렸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예수를 향해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를 경배하고 선지자로 대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엘리사벳의 찬양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눅 1:41~42). 성경은 또한 마리아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 보았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시리라”(눅 1:48). 이 여인은 완전히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예수와 관계 맺는 자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고백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인정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28절).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1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핵심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

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마 12:50). 이것이 바로 열화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에서 그의 자녀로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모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영원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구원의 관계, 즉 생명의 관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정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가나나 혼인잔치’에 대한 사건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종들에게 무어라고 말하든지 알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요 2:5). 그분의 말씀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21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더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24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레로써 사람 같으리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순종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신 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14절은 증거 합니다. “여자들이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히 기도하에 힘쓰니라”. 한 마음으로 이제 그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상례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습니까. 이 때까 오기 전, 예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눅 2:19 참고). 그녀는 말씀대로 행하지도, 말씀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14절에 이르러 이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예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고 있습니다.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

우리는 종종 예수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기다렸으면서도, 정작 메시지에서 그들 앞에서 마귀를 쫓아낼 때는 예수의 기적을 악마의 소행으로 간주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복 받은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온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자리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도록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사행하는 충현의 성도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일대순간 인도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

황금짜지

외국사람으로서 찬양대에 섰을까?

나, 하나님을 만났기에

“세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만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찌라!” (시 96:1).

저는 매일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의 삶에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후, 저는 몽골집회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 매일 기쁩니다. 지난 2001년 한 해 동안 19명의 몽골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 다. 19명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4 부에 매 때마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찬양대에서 연습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사실 지도 제가 정말 아멘찬양대에서 봉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 주위의 몽골 동료들이 "비록 우리들은 2층 통역기 좌석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늘 너와 함께 찬양대에서 찬양할거야.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힘껏 찬양해라" 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축하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찬양대에 들어가니 연습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 하니 더욱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몽골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민병을 전도사님, 그의 많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는 하루하루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믿음생활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마다 저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저에게 전도사님과 선생님 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경기의 지역별 전도모임과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심방, 그리고 외국인교회훈련원(그레이트인 FLMT) 등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수고 덕분에 훈련교회 몽골지 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가족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훈련교회에 다니 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정말 가슴 벅찬 사건은 바로 훈련교회에서 예수를 알고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부딪드립니다. 몽골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전체 인구의 0.1%만이 기독교인인 몽골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 록 기도해 주세요. 특히 몽골 서부산악 평원지대와 동부평원지대, 그리고 남부사막지대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 몽골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길 레 (외국인 선교부)

성령이 말하는 인간 ③

인간의 타락, 그 슬픈 이야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오래된 광고 문구를 기억할 것이다. 자기 회사의 상품을 사는 것이 좋은 선택임을 강조하는 기억에 남는 광고 문안(文案)이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이 좌우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보게 된다.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을 만드셨고 지으신 사람을 그 곳에 두셨다.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창 2:17) 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되는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으셨다. 여기에는 그것이 어떠한 명령이든지 간에(이유를 알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창조주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함을 인식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하 나님의 최초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앞에 놓였다. 인간은 그것을 순종할 자 유도 불순종할 자유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첫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하시 다”라고 하면서 사탄은 유혹을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머물러 있지 못했던 하와는 이 유혹 앞에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과 함께,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로 그 의미를 약화시켰으로써 약점을 드러내곤 말했다. 이 틈을 노 린 뱀은 두 가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리라”. 모두 거짓이었으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간교한 뱀의 이 유혹을 단번에 물리치지 못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 먹고 말았다(창 3:6). 첫 사람 아담은 온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했으나 그 연합을 무참히 파괴하 였다. 첫 사람들의 슬픈 선택으로 불마암이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이라는 멍에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만일 첫 사 람이 그 시험을 이겼더라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힘을 소유했을 것이다. 또한 사탄은 그를 패해 달아났 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지위를 허락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선택의 시험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인간은 연고자 했던 선(善)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실 때 그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고개를 숙였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인생의 역사는 시작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줄 것이고, 우리는 들을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 (이성욱 목사)

국내·외국 선교부 기도제목

몽골

♥ 몽골팀의 모든 교사가 성령충만하도록, 몽골팀의 모든 학생들이 성령충만하도록, 몽골인들이 집회와 4부예배에서 성령충만하 도록, 몽골팀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성령충만하도록, 몽골팀을 아끼는 사람들이 성령충만하도록.

CIS팀/국가연합

♥ CIS팀 학생들이 다시 새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CIS 집회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공장의 화재로 분실된 밀자, 갈 파, 벼를 세 사람의 여권과 물품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중국

♥ 독립집회가 은혜충만하도록, 중국인 헌신자들이 복음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교인들 간에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도록, 앞서 일하시는 팀장, 부팀장 회장단을 위 해, 교사들이 잘 훈련되어 사람들을 양육 하는 열정이 되도록.

스리랑카

♥ 임직원들이 성령충만하여 팀을 잘 이끌 수 있도록, 교사들이 학생양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울지역 새신자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귀국자들이 선교사들과 잘 협력하여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기도원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 독립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지인 헌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헌지인을 잘 섬길 수 있는 교사들이 세워지도록, 차량문제로 출석하지 못하는 장기결석자를 위해, 앞서 일하시는 팀장, 부팀장을 위해.

방글라데시

♥ 헌지인 헌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되도록, 많은 방글라데시 형제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인도되도록, 교사들이 전도와 양육에 헌신된 열정이 되도록, 앞서 일하시는 팀장, 부팀장을 위해.

인도

♥ 세례자가 나올 수 있도록, 새로 온 교사와 기존교사가 잘 협력하여 학생양육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리더들(마나, 쿠퍼즈)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원순 손거기 집단 사고를 당한 위기가 패뮴되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차량단으로 밍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울지역의 4명이 출석할 수 있도록.

이란

♥ 이란 형제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라흐만, 라슬함제의 신변보호를 위해, 형제들이 교회화장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리핀, 베트남

♥ 아직 학생들이 없지만 개척이 활성화되도록, 팀장과 헌신된 교사를 보내주시기를.

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주영 (고등부)

작년 겨울, 고등부 부회장이 된 이후로 저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수련회가 예정보다 일찍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는 2월 중순쯤 했었는데, 2월에 하게 되면 고등학교 예비 소집 때문에 많은 1학년 형제, 자매들이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1월로 앞당겼습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 간의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준비와 기도가 부족하여서 걱정도 많이 하였지만 다행히 첫 날의 프로그램은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저녁 부흥회 때,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제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부흥회 시간에 받은 은혜를 간직한 채 둘째 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날 프로그램은 날씨가 예상보다 좋지 않아서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끝나게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학생회 프로그램과 마치고 일일 캠프 체험을 하였는데 이것은 여름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다시 한 번 단기선교의 꿈을 다질 수 있었고 또 단기선교에 필요한 많은 지식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정돈된 분위기에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날의 학생회 프로그램은 퀴즈대회였습니다. 처음에 의도했던 퀴즈의 목적에서 벗어나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읽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저였지만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 에스더 (고등부 교사)

맨 처음 고등부에 가게 되었을 때, 나는 두렵고 떨렸다. 유치부에서만 5년 가까이 봉사한 나로서는 고등부 교사를 감당하는 일이 엄청난 모험이기도 했다. 고등부를 졸업한 지 7년, 학생이 아닌 선생님이로 수련회를 참석한 것은 정말 감격이 아닐 수 없었다.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수련회에 참석하였다. 무엇보다 대가 말고 있는 '야드니엘'이라는 찬양 선교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되었다. 수련회는 개회예배부터 활기에 넘쳤다. 처음 고등부에 왔을 때, 학생들은 모두 찬양에 의욕이 없는 듯이 보였지만 그랜 들었다.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가장 큰소리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부흥회 전 찬양시간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던 나에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었다. 비록 준비는 미흡하였지만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왔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찬양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감사의 전율을 느낄 수 있었고 프로그램 때마다 학생들의 열의와 결심이 느껴졌다. 나는

학생들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학생들을 보며 얼마나 감사한지... 학업, 학교, 학원을 내려놓고 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준비하여 두신 듯 하였다. 고등부 때 지금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기도하였던 나에게,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의 모습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고등부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님과 대화하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드리기를... 학업과 진학에 지쳐가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알려주고 싶다. 복음선가와 찬송가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할지도 또한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고등부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든다.



먼저 예배찬양대 겨울캠프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원들은 예배 겨울캠프를 위해 한 달 반 전부터 머리를 짜내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 회의를 하면서 많은 충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다. 우리는 작년처럼 고등부 겨울수련회가 끝난 후 총회기도원에서 예배 겨울캠프를 가졌다. 총인원은 선생님들까지 합쳐서 50명이 좀 안되었다. 몇 년 전에 비하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들로 인해 예배찬양대에 존재하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다. 캠프는 예배로 시작되었다. 예배인들은 바침을 전도사님께서 하셨다.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찬양대로서의 헌신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고, 찬양할 때의 자세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친교를 시작했다. 우선 예배이 서로 친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YOU & I'라는 시간을 가졌다. 1:1로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나는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해 좀 아쉽었다. 그래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예배인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주님 안에서 하나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YOU & I를 마치고 우리는 분위기를 활기차게 하기 위해 게임을 했다. 이구동성과 방석퀴즈였는데 이 게임을 하기 전에 우리 임원들은 걱정을 많이 했

예배찬양대 겨울캠프를 마치고

유종훈 (고등부)

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모두가 즐겁게 게임에 참여해주어서 우리 임원들은 더 힘이 났다. 모두가 환하고 밝은 표정이었다. 이렇게 오후순서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한 후, 우리는 '타임캡슐'이라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찬양대에서 이렇게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다짐과 자신의 기도제목들을 써서 편지봉투에 넣은 다음,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말에 다시 꺼내 보는 것이다. 예배인들 모두 자신의 다짐과 기도제목을 진지하게 적었다. 그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예배 찬양대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생겼다. 타임캡슐을 끝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회를 가졌다. 예배 찬양대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은혜로웠다. 어드레 나도 기도하면서, 예배 찬양대를 1년 동안 잘 이끌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정말 기도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한다. 예배 찬양대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열정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열정을 하나로 모아 부르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소망한다. 비록 인원은 적지만 주님께서 하늘의 큰상을 내려 주시리라 믿는다. 예배찬양대 화이팅!!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1월 25일 금요일

2. 약속이 있어야 할 이유

창세기에 나타난 원시역사(창세기 3-11장)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놀랍게도 천지와 모든 현상, 즉 창조된 세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인간에게 필요하게 만들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한다면 커다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아담과 하와)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말았다(창 3:4-5).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약속을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창 3:19),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다(창 3:24).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지키셨으며, 복된 약속들을 주셨다(창 3:15). 심지어 가인이 죄의 대가로 '가 되리라'는 형벌에 대해 두려움을 호소하자 그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기도 했다(창 4:12).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다. 창세기 6장5절에서는 인간이 '항상' 악하다고 했으며,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은 배반한 인간들을 벌하시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또 다시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에 이른다. 그래도 인간의 타락은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기에 이르렀다.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창 11:1-4). 이로 인해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방으로 흩으셨다(창 11:7-9). 이렇듯, 창세기 3장에서 11장에 나타난 인류의 원시역사는 에덴에서 바벨까지의 연속된 타락으로 그 끝을 맺고 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별하신 분도 하나님이며, 약속을 통해 다시 새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고만하하여 끊임없이 배반하고 죄악을 행한다. 인간은 얼마나 그릇 행하는가? 그럼에도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새롭게 선택하시는데, 이 선택이 바로 마지막 약속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원시역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1절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 · 제 · 더 · 이 · 상 · 약 · 속 · 은 · 열 · 다 · 이 · 것 · 이 · 마 · 지 · 막 · 약 · 속 · 인 · 것 · 이 · 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 영 미' 자매를 소개합니다



부모님은 충남 서산에 계시고, 언니, 동생과 함께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며 직장을 구한 뒤에 결혼하고 싶습니다. 찬송 부르는 것과 무엇인가 만드는 것을 잘하고 좋아합니다. 아는 선배가 좋은 교회 있으면 같이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생활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교회의 웅장함과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모습이 꼭 인상적이었습니다.

다. 또 목사님의 말씀이 진정 마음 속에서 우리 나오는 말씀이라는 느낌을 늘 받습니다. 어딘가에 게실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매우 놀라웠습니다. 또한 저를 위해 큰 고생을 겪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제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주일 새가족 소개 시간에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 가족과 함께 나오시거나, 부부가 같이 와서 소개할 때가 제일 부럽고 보기 좋았습니다. 아내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어느 새가족의 인사가 제겐 큰 기적으로 남습니다. 저도 할머님,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지금은 성경 공부조차 많이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새가족부 주일학교를 통해 저와 같은 '초보 신도'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숙경 (새가족부 통신원)

신령한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충현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새운 5대 목표를 기도와 실천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5대 목표 중 첫 번째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말로만 신령한 예배를 외치고 행동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시간 15분 전에 나와서 조요히 묵상기도하며 예배 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예배가 시작된 후에도 당당하게 들어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축도 중에는 성경책을 덮거나, 가방을 여닫는 등의 소음이 이어집니다. 축도와 성가대의 송영도 분명 예배 순서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사비 목사님이 폐회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조용히 묵상하며 예배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12분 먼저 나가기 위해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서두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치 못하고, 다른 예배자들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경건하게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없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헌금을 꺼내어 놓다 보니, 헌금 주머니 속에서 휴지조각, 이수지, 수과파제 영수증 등이 발견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을 위해서도, 정직정진을 위해서도 헌금은 미리 준비하고, 봉투에 넣어 금액과 이름을 써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예물이거나 자녀에게 주는 세뱃돈도 미리 준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준비된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조 종광 (집사, 회계부)

【한국 교회사】 입국하는 선교사들(2)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입국(1885)

알렌 의사에 이어 미국교회로부터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된 개척자는 미국 북장로회의 언더우드와 미국 북감리회의 아펜젤러 목사 부부였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메릴랜드가 기독교를 통해 고종에게 허락받은 선교 사업은 학교와 병원사업이었다. 따라서 미국의 선교부도 선교사를 선별함에 있어 두 가지 사업을 염두에 두었다. 그 결과, 1884년 말에 이르러 미국 북장로회에서는 의료선교사로 알렌을, 교육선교사로 언더우드를 선별하였고, 미감리회에서는 의료선교사로 스크랜튼을, 교육선교사로 아펜젤러와 스크랜튼 부인을 각각 선별하였다. 이들의 신분은 의사 혹은 교사였지만 언더우드, 스크랜튼, 아펜젤러 모두 이미 안수를 받은 목사들이며 복음전도라는 본래의 사명도 수행할 수 있었다. 1885년 4월 5일, 이들은 태평양을 건너 제물포에 상륙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1884년 12월 초에 있었던 갑신정변의 여파로 국내정세가 불안하여 선교사들의 입국도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아직 서술의 분위기가 외국인에게 호의적이지 못하다며 입경을 만류하는 미국 대령사무소 폭크의 말을 듣고 아펜젤러는 타고 온 배로 일본에 돌아갔다. 반면 언더우드는 입경을 감행하여 서울에 있던 알렌의 계종원 교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2개월 후인 6월에 아펜젤러 부부가 재입국하면서 미감리회와 북장로회는 미국 공산관 근처의 정동에서 기지를 마련하고 선교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로써 한국 개신교회의 큰 두 줄기, 장로교와 감리교의 한국 선교가 이루어진 셈이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비록 교파는 달랐으나,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될 때 동시에 함께 연회전문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일생을 통해 가장 친근한 선교의 반라자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생애를 바쳤다.

다음주일 찬송

239장 사랑의 하늘 아버지

영국의 여류 찬송가 작가인 앤 스텔이 작사한 이 찬송가는 한 충격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그녀는 어렸을 때 둔부매 입은 상처로 평생 거의 불구에 가갸를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 또한 결혼식 전날 혼인을 잃기도 했다. 결혼 준비로 바쁜 입장에 신원이 익사했다는 연락이 왔으니, 결혼식이 장례식으로 바뀌었고 축하하는 조객이 없게 되었다. 그녀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녀는 이런 사위 뒤에 계시는 주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바라본 것 같다.

이 찬송의 대의(大意)는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힘이 있어지면서도 진정한 3박자의 곡집과 아주 부드럽고 은은하게 가사가 잘 들리도록 불려야 한다.

(찬양위원회)

나의 나뉜것은

강 소 영 (집사, 유아부 교사)

바른 교회봉사

박 경 배 (외선부교사)

예수님!

이 선 자 (집사, 유치부교사)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나는 주일 아침 새벽을 깨친다. 자기 선생님과 보고 달랠지는 아이들, 진지한 표정으로 두손 모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라고 말하며 콘서리로 성경 말씀을 따라 읽게 한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아이들을 보며 나는 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한다.

오늘도 많은 어린 생명들이 세상의 학문을 익히기 위해 어른들의 뜻대로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 사는 것이 험하게 주일에도 일터로 간다는 어른들 때문에 교회를 못나오는 아이, 부모의 취향에 따라 세상으로 놀러가는 아이들,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평강의 주님! 도와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강하시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우리의 외로움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는 아이들이 아름답고 힘있게 자라리라 믿는다.

2022년도를 맞는 유아부 식구들의 새해를 위한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끝나고 집사님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간증이 시작되었다.

어느날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시어 주님을 영접하고 힘겨운 세상에서 주님을 체험하였다는 한 집사님께서는 지금의 하루하루를 감사와 평안으로 보낸다고 하신다.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고 교사로 봉사하기로 다짐했을 때 주님께는 나에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수 1:9)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혼자서 세상 모든 일을 근심하고 있었다. 나의 이런 모습을 생각하니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싶었다. 하루에 한 번은 목상하는 구절일에도 이 저 너, 더욱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의 나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 헛되고 헛된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나의 어떤 모습이 남에게 기쁨이 될지 쉽지가 않음에도 내 스스로를 낮추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야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라는 말씀은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영적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회나 공동체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강조되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기 힘듭니다. 복음이 강조되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교회에 대한 보상심리가 영적자유 없는 교회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를 인간 중심적인 모임으로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지교회마다 특유의 문화와 뿌리 깊은 폐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세상을 향해 역동적으로 뻗어나가야 할 성도가(행 1:8), 좁은 교인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정의를 찾았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교인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부어 새우신 종에게 천차(신 17:12) 행했던 것이나, 하나님 중심의 교회정착을 수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이나,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사실처럼 난무했던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다운 교회봉사를 하려면, 우선은 복음을 깨닫고, 교회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언제, 어느 곳을 가든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얽매지 않으면서, 공동체에 확신을 가진 역동적인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공동체 사역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샘

하박국(Habakkuk)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

경건한 사람이 겪는 고통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아닌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각한 죄악에 빠져있는데, 왜 정직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질문이 그의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합 1:2-4). 이러한 고통은 기록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맞이하게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한 고통은 하박국 선지자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비롯해 구약성경을 기록한 모든 선지자의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1장~5장을 보면 유다의 총체적인 죄악에 대해 분노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다른 선지자의 선지자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실 죄로 인한 고통은 굳이 민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독 심각한 죄는 바로 각 개인의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입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시고, 사도 바울도 고인한 문제와 바로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인종적인 죄악 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하기도 합니다. 이사가 6장의 성전 사건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이러한 고민과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친절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치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를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3년 동안 받으셨고, 3년 동안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박국을 읽을 때에는, ‘질문과 답변’이라는 전개방식을 통해 서 좀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깨달았고, 정직함에 불타오르던 그의 분노는 기도와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면,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을 깨닫고 결국 찬송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하 목사(출판국 지도)

Catechism

20. 국가 위정자에 관하여

(1) 국가 위정자의 직무와 그리스도인 공직자

지극히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정의와 선을 위해 백성을 다스리는 국가 공직자들을 세우시고 자기 권할 하여 두셔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선을 행하는 자를 모으고 권정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공직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일을 수락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나라의 진정한 법을 따라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에 성자들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정정을 행한 것은 정당합니다.

(2) 위정자의 의무와 그리스도인 국민의 권리

국가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령의 징행에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며, 적어도 신앙의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느 한 교파를 다른 교파 이상으로 우대하지 않고, 모든 교역자들이 폭력이나 위협 없이 그들의 신성한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화하고 영적 자유를 누리도록 주님과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정당한 정치와 권정을 정하시었으므로, 어떠한 교파의 회원들이 자신들의 교파와 신앙에 따라 정당한 행사를 하는 것을 국가의 법률로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국가 공직자들의 의무는 불신앙의 교파로 모욕이나 폭력이나 학대나 상해를 가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박해받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신자들의 명성과 인격을 보호하고, 모든 교회의 회회가 방해받지 않고 개최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국가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정부에 세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하고 양심에 따라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그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정자가 무신론자이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위정자의 법적 권위를 무시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김경배 전도사·영남1부부지도)

- 알림
1. 2월 17일자 주간충천 광고 마감안내

성남 연휴관계로 2월 17일자 주간충천광고는 2월 6일 5시까지 사무국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 안내

2022년도 1차 학습·세례식이 2월에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입교·개종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담당교역자에게 1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일 국수 제공 시간 연장

며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국수 제공시간을 오후 3시 30분까지로 연장합니다.

4. 2월 정기회의

2월 6일(수) 수요일 예배 후 당회와결의

- 모임
1. 원로 월요세례기도회

일시: 28일(월) 새벽기도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의 화요 새벽기도회

일시: 29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감람전도의 월례회

일시: 10일(다우주일) 15:00

장소: 배다나눔

4. 이·미용전도의 월례회

일시: 7일(목) 11:00

장소: 영아실

5. 안수집사의 월례회

일시: 5일(수) 15:30

장소: 유아부실

6. 권사회 1·2차 월례회

일시: 6일(수) 수요일 예배 후

장소: 감람회실

- 남녀전도회
1. 바울 6차 월례회

일시: 10일(다우주일) 15:00

장소: 교육관 414호

2. 바울 12차 월례회

일시: 10일(다우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사랑부실

할렐루야 찬양대(주일3부) 대원모집

일시: 2022. 2

대상: 충천교회 세례교인으로 만 50세 이하

문의: 총무 박우현 집사 016-369-8604

찬양대 원동력모집

일시: 2022. 2

대상: 소년부부터 누나

문의: 내선 210 / 송재철 선생님 017-417-6018

전도위원회 및 직능전도부 사무실 통합운영 (제2교육관 6층)

전도위원회, 교정전도회, 감람전도회, 교건전도회, 실업인전도회, 이·미용전도회, 학원전도회 회비수납은 6층 직능전도부 창구에서 접수하오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천복지관

장미엔 생향로모임

정신장애 부부의 가정에서 발원하여 자원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대상: 주 1회 꾸준히 봉사하실 수 있는 분

문의: 충천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최지은 (☎564-4885 ☎111)

장미엔 청소년과 함께 하는 노래 생활 자립봉사자 모집

장미엔 청소년과 함께 살아간다면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기간: 2022년 2월 6일(수) ~ 7일(목) 19:20

문의: 충천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최지은 (☎564-4885 ☎108)

새·가·족·을·한·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7	홍숙희	12	청년2부	조차진(12)	84	최수현	19	청년2부	추수현(19)
78	백정일	19	청년1부	박준근(8)	85	최태임	19	청년2부	정구영(5)
79	황승은	17	청년1부	최막경(17)	86	강장자	9	청년2부	
80	이지연	19	고등부	이소연(193)	87	이홍수	9	사랑부	
81	양요한	19	대학부		88	양계곤	13	청년2부	임원실(13)
82	노승현	19	청년1부		89	이희영	13	청년2부	임원실(13)
83	김미경	19	청년1부	문선용(7)	90	오매희	3	마리아	

* 충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10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장학원 목사)	교육관 314호	교포회 (사정관 목사)	교육관 307호		
	2교시 16:00-16:50	기독교론 (가희정 목사)	교육관 314호	구약론 (이종환 목사)	교육관 307호		
2월 17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이종경 목사)	교육관 407호	세례론 (김병철 목사)	교육관 307호	유아세례관 (이종환 목사)	교육관 314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2월 24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 (지역 찬양예배, 본당)		유아 세례식	(오후 3시, 배다나눔)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아동·유아동생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청소년·드래곤 예배)	본 당
찬 양 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배	1.8전 11:00 2.오후 7:00	본 당
금 요 회 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 성·기·는·분·들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 이종태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 서광진 정영재 이종경 박인기 여성기
- 류병희 노경록 이종철 김영훈 여극근
- 김교성 송길환 이순근 이윤희 안창덕
-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 고창환
- 찬양감독 강임규
- 여전도사
- 정연희 김정자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 김옥윤 한원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 김갑자 안태순 최효진 백명자 김경연
- 조옥자 강덕필 김경선 강재규 최본일
- 교정전도사 박영희
- 선교교도사 정은희
- 단기선교사 장기업(의정부)
- 단기선교사 최은아(의정부)
- 협력선교사 하효섭(의정부)